

傳統마을 生活環境 構成體系와 住生活 特性에 관한 研究*

— 臨河댐 水沒地域의 水谷洞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Living Environment Organization System in Traditional Village

— In the case of the Sugok-dong in the Imha Dam Flooded Area —

鄭 俊 鉉**

Jeong, Jun Hyun

孫 光 濟***

Sohn, Kwang Jae

李 重 雨****

Lhee, Joong Woo

Abstract

Sugok Villiage, of the prospective flooded villiages for building Im Ha Dam, is selected as the studied place.

Primari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ed, recorded about traditional living environment, and then searched to find out possibilites on the context of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 life through analyzing about life contents and space.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1) In composition of living environment, thinking view on confucianism and living view on folk beliefs are considered as important element
- 2) Hierarchy of life environment is appeared of above and below space.(focused on JONG KA) and

* 本 研究는 韓國科學財團의 研究費에 의해 수행된 調查研究의 일부입

** 正會員, 大邱大 專任講師

*** 正會員, 大邱大 副教授

**** 正會員, 啓明大 教授, 工博

inner and outer space(boarded on pine fores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living territory life environment can be divided into five territories.

3) Confucian ideas, social status, folk beliefs and economics has been affected about formation of individual life.

Accordingly, I believe that true inheritance of traditional culture was, through preserving mental contents as well as physical contents, possible.

1. 序 論

1-1. 研究의 目的 및 意義

慶北 安東郡 일대는 임하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인접 3개군(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6개면 35리(동)이 水沒되게 되며, 이들 마을의 1천 7백 93세대의 주민들은 슬한 哀歎이 깃든 그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되었고, 아울러 이들 지역의 여러 文化遺産도 그 원형을 잃게 되었다.

한 지역의 생활환경은 그 지역 구성원의 사상적 배경과 환경적요인이 복합적으로 溶解되어 그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표현된다고 본다면, 임하댐 수몰지역의 마을들도 이러한 제요인들에 의하여 生成 發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儒敎文化圈에 속하며, 생활의 여러면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으로 일부 주택 및 생활환경이 改善되기도 하였으나, 생활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 생활내용이 전수되고 있는 고로, 이들지역은 곧 우리의 전통적 생활문화를 교육하는 山敎場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임하댐 수몰마을의 생활환경에 대한 전통적 생활내용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이를 조사 기록해 두고자 함이 일차적 목적이며, 아울러 주생활의 내용과 주생활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 측면에서 전통성 계승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논문은 '臨河댐 水沒地域의 傳統마을과 住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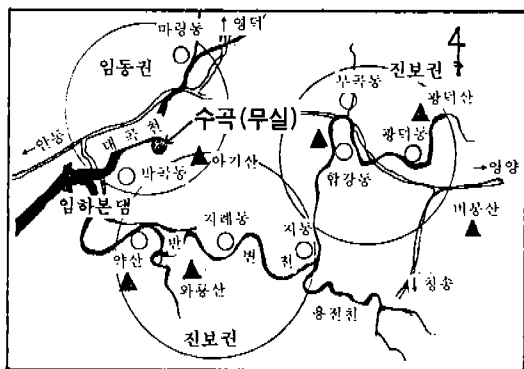
空間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의 일부에 속하며, 조사대상 마을들 중에서 水谷마을(속칭 무실)¹⁾이 역사적, 문화적, 생활내용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마을이라 판단되어 본 논문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調查範圍 및 方法은 다음과 같다.

- 1) 기존문헌을 통하여 대상지역의 조사가치와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으며,
- 2) 생활환경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자연 지리적, 인문·사회적, 생활 경제적, 민속·문화적 환경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현지답사를 통해 설문 및 면담에 의하여 조사 하였으며,
- 3) 이들 제요인들의 相互作用 關係로 이루어진 마을의 생활환경 구성체계를 실측분석 하였으며,
- 4) 대표적인 평면유형을 통해 室 구성과 주생활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조사는 3차에 걸쳐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 1) 1차조사(1988. 7.15- 8.10) : 현장답사에 의한 물리적 생활환경의 표본조사,
- 2) 2차조사(1989. 7.15- 8.15) : 생활환경, 생활공간 및 생활내용 조사,
- 3) 3차조사(1989.12. 2-12. 5) : 보완조사.

1) 이 조사 연구는 3개권역(임동권, 임하권, 진보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대표적 마을을 선정하여 총 9개마을이 조사되었다.
 2) 행정동으로는 수곡동, 수곡1동, 수곡2동으로 나누어지며 수곡동과 수곡1동을 '무실'이라 하고 수곡2동은 '한들'이라고 칭하여 진다. 본 고에서는 수곡동과 수곡1동을 수곡동(무실)이라고 통칭하였다.



〈그림 1〉 조사대상지역의 권역분포

2. 生活環境의 形成背景

인간은 환경과의 總化에 의하여 生活을 이루어 가며, 이때 인간의 生活을 위한 定住空間은 곧 생활환경으로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어 진다. 그리고 생활환경은 주생활을 위한 주변적 환경으로 인식되어지며, 주생활의 대상적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³⁾. 이와같은 일련의 작용 관계에 의하여 형성된 생활환경적 범위를 단위로 지역공동체⁴⁾(Community)를 이루며, 그 사회집단 구성원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조건, 그리고 여러가지 規制의 조건들이 반영되어 하나의 특징적 유형으로 形狀化 되어진다. 그리고 形狀化 된 생활환경으로서의 마을공간은 하나의 문화적 특색을 띠게 된다⁵⁾.

- 3) 李重雨(1988)는 “體·用 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變用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인 ‘한’사상에 입각하여 생활공간을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서 마을공간은 생활환경의 공간적 범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때의 생활환경은 주생활의 성립을 위한 대상적요소로 보았다.
- 4) 건축내지 도시학의 측면에서 지역공동체란 개념은 마을, 읍, 도시, 주거단지등의 근린성을 띤 공간적 단위내의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지역 마을도 이러한 특성이 매우 짙다 할 수 있다. (김봉렬, “지역공동체로서의 전통마을과 도시”, 「건축과 환경」, 1986. 5, p. 18.)
- 5) 李鍾弼 외 3人, 「嶺南地方 固有聚落의 空間構造」, 영남대출판부, 1983, pp. 105-110.

이러한 맥락에서 수곡마을이 하나의 지역공동체적 생활환경을 형성하게된 배경을 파악하고자하며, 이는 연구의 편의상 자연지리적 요인, 인문사회적 요인, 생활경제적 요인, 민속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2-1. 自然地理的 背景

일반적으로 자연적 환경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곧 자연적 환경요소가 生活行態 및 주거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뜻한다.

특히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적 조건에 순응하면서 자연의 질서안에서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된 생활을 이상으로 여겨 왔으며⁶⁾, 이러한 자연관은 자연환경에서 일종의 질서를 체험하고 이를 생활공간 및 생활환경의 구성에도 그 질서를 부여하여 왔다. 그리하여 생활환경으로서의 지리적 適地 條件은 背山臨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왔으며, 지형적 특성에 따라 가로를 내고, 생활공간을 배치하였으며⁷⁾, 기후적 조건과 생활관념에 따라 住宅의 坐向등을 결정하여 왔으며, 여기에 생활용도와 기능에 따라 생활공간을 구성하여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실마을의 自然地理的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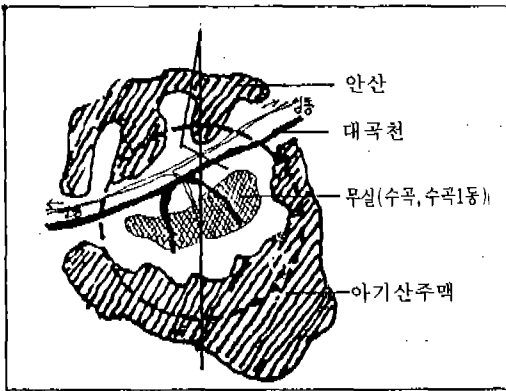
안동에서 청송방면의 34번국도를 따라 약 20km 지점에 이르면, 도로 오른쪽으로 숲속에 싸인 마을이 鶴岐山을 뒤로한채 넓게 펼쳐져 있다. 마을 앞에는 大谷川이 흐르고 마을뒤에는 主山인 鶴岐山의 地脈이 마을을 겹으로 에워싸고 있으며, 들판을 지나 案山을 마주하고 있어서 풍수적 형국으로도 吉地임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리고 마을앞 대곡천을 따라 농지도 비교적 넓게 자리잡고 있으며, 대곡천에 임한 평지에서 시작하여 아기산의 줄기가 형성하는 구릉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集村을 이루고 있다.

- 6) 윤홍택, “자연관이 건축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지 23권 86호, 1979. 2, p. 6.
- 7) 이중환은 擇理誌의 「卜居總論」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은 지리, 生利, 인신, 산수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고, 집터에 대한 요건으로는 水口, 野勢, 산의 생김새, 흙빛(土色), 朝山朝水를 들었다.

그리고 地質의 特性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매우 직접적인 영향요소이다. 이곳의 농경지는 沙質土 내지 半沙質土가 대부분이다.

한편 기후적 조건을 보면, 임하댐 지점을 중심으로 한 인근 7개 측후소가 조사한 이 지역의 년평균 기온은 12.55℃로서 비교적 온화하고, 69일의 강우일수에 평균강수량은 917.8mm이며, 년평균 습도는 70%로 조사된 바있다⁸⁾.

이러한 자연지리적 조건은 곧 수곡마을의 생활환경 구성에 중요한 變因으로 작용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진다.



〈그림 2〉 무실마을의 형국도

2-2. 人文 社會的 背景

인간은 일정한 곳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인간 생활은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며, 이때 인간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위세계를 환경이라 하며, 환경의 주체가 되는 구성원의 속성 및 사회적 구조에 따라 생활환경의 구조적 특징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 사회 구조의 이해는 곧 그 지역의 생활환경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필연적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村落은 대부분 同族部落으로써의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있다⁹⁾는 점을 미루어 볼

때, 同族部落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와 문화의 구조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¹⁰⁾. 동족부락형성의 주체인 동족의 특성은 동족조직의 역사성으로써 공동조상의 인정, 계보관계의 상호승인, 생활상의 상호관련성에 있다. 특히 同性不婚, 異性不養으로 結束된 한국의 同族部落은 내적으로는 동족간에 자위조직을 이룸과 동시에 외적으로는 班常과 같은 신분개념에 의하여 강한 對立現象을 보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봉건적인 지주층 형성 하고 宗家를 중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여 동족의 울타리와 같은 기능을 갖기도 하였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무실 마을의 입향조 성씨와 마을의 성씨분포 그리고 이들간의 인관관계등을 통하여 이 마을의 인문·사회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곡동은 全州柳氏의 世居地로서 약 4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班村의 同族部落이다¹²⁾. 이 마을의 入鄉始祖인 柳城(1533-1560)은 청계 金璣(1500-1580, 학봉 김성일의 부)의 사위가 되어 영주로 부터 移居, 이곳에 정착하였다.

일반적으로 班村의 동족부락이 그러하듯이 무실의 전주류씨도 큰 宗家를 중심으로 정자, 사당, 제실, 제각, 비각, 서당등을 두고 대외적으로 그 위세를 떨쳤으며,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박실과 한들, 맛계동으로 분파하였다¹³⁾. 그 후 현재까지 비교적 규모있는 부락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전주류씨가 入鄉하기전 이미 이곳에는 남양홍씨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며, 이것이 확실시되는 것은 마을 뒷산에 남양홍씨들의 묘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며,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성묘객이 있었으

- 10) 동족집단은 동성동본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며 하나 또는 수개의 동족집단이 지연을 바탕으로 일정지역에 공중할때 이를 동족부락이 하며, 출신신분에 따라 班村, 民村으로 구분된다.
- 11) 李鍾弼 외 3인, 전제서, pp. 117-119.
- 12) 1930년 조선총독부 조사에 의하면 당시 수곡마을은 전주류씨 92호, 동족 외 40호, 총132호의 규모있는 동족부락으로 조사된바 있다. (조선총독부, 조선의 취락(후편) 소화5년(민속원, 1984)) p. 477.
- 13) 水柳會誌, 「岐陽」, 전주류씨 수류종친회, 1989, 창간호.

8) 경상북도, 안동대학박물관, 「임하댐 수물지역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1986, p. 1.
 9) 善生永助, 「朝鮮의 聚落(後篇)」, 1935, p. 1.

나 요즈음은 목포가 되었다고 한다.

수몰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무실의 성씨분포는 수곡1동의 경우 총 105가구중 全州柳氏 水谷派 86가구, 문화柳氏 7가구, 의성金氏 3가구, 안동權氏 1가구, 안동張氏 3가구, 청송沈氏 1가구, 김해金氏 3가구가 등으로 조사된바 있다.

그리고 전주류씨 이외의 각성은 다소 소외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식적 행동은 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성집단의 지배적 입장과 각성집단의 피지배적 관계에서 야기된 심리적 갈등으로 인하여, 이 마을의 인간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¹⁴⁾.

이러한 인문적 조건은 생활환경의 구성에 있어서 위계적 질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면에 있어서는 전주류씨 문중 내규가 이곳의 생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3. 生活 經濟的 背景

일반적으로 農耕 지역사회의 경제적 상황은 자연적, 지리적 환경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즉 한 지역의 전체환경 속에서 생활에 有效한 환경면적은 마을의 규모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의 규모 및 생활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곡마을의 생활 경제적 상황을 농경규모와 농경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하수몰지역은 84%가 농가이며, 농가당 경작규모는 1ha이하 경지를 가진 영세농가가 대부분이

다. 그러나 무실마을은 그에 비해 비교적 넓은 경작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마을의 주용경작물과 그 규모를 <표 1>에서 보면, 벼농사가 전체 경작물의 53.9%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고추, 담배, 함께 순이다. 특히 이 지역은 지질이 砂質土 내지 半砂質土라서 담배와 고추 작황에 알맞으며, 이는 농가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몰지역중에서 경지 정리가 된 유일한 마을이며 <표 2>에서와 같이 기계화 농영의 비중이 높아 안동지역 뿐만아니라 북부지방에서도 영농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마을이기도 한다.

그리고 마을 뒤 아기산 일대에서는 버섯과 약초가 자생하며, 이것의 採取로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의 採取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松契가 조직되어 공동으로 채취되며 소득일부는 송계 공유재산으로 축적하고 나머지는 제원에게 할당된다.

이와같은 경제적 조건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토지 소유 규모가 크지 않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자급자족의 생활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생활공간의 규모에도 반영되고 있다.

<표 2> 수곡동의 농가보유 농업기계 실태

종 류	수 량	가구당 비율(%)
우 마 차	2	0.9
경 운 기	53	24.3
탈 곡 기	60	27.5
리 어 카	160	73.4
양 수 기	59	27.1
분 무 기	139	63.8
절 단 기	11	5.1
건 조 기	3	1.4
바 인 다	1	0.5
파 종 기	1	0.5

(참고문헌 7)의 p. 246에서 재정리

<표 1> 수곡동의 농사 경제규모

종 류	경작규모	비중(%)
벼	89ha	53.9
고 추	28	17.0
담 배	20	12.1
콩	4	2.4
참 , 깨	18	10.9
땅 콩	3	1.8
과 수	3	1.8
계	165	99.9

(참고문헌 7)의 p. 243에서 재정리

14) 경상북도, 전계서, p. 640.

2-4. 民俗文化的 背景

文化란 '한 인간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정의 한다면¹⁵⁾, 민속문화는 전승되어온 인간의 생활관습과 사고, 생활 행위 등이 응축된 곧 생활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민속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역사속에서 형성되었기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속문화는 이들의 생활속에 내재되어 있는 土着性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민속 문화가 전통성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을때 그 민족의 진정한 주체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전통 문화는 농경을 바탕으로 한 까닭에 다분히 정착적이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순수문화이며, 생활공동체 속에서 그 맥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무실마을도 전통적 민속

문화가 짙게 깔려있는 곳이며, 이들 내용은 곧 생활속에 용해되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마을 공동 행사로 행해지는 洞祭類型과 가정에서 이루어 지는 家神신앙의 종류 그리고 관혼상제 등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마을 공동 단위로 행해지는 洞祭는 자연적인 단합 화목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농경사회의 협동성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이는 부족국가시대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일부로 전수되면서 생활환경구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실마을의 洞神은 女선왕신이며, 마을로 들어가는 동구에 선낭당이 있고 그 주위에 무성한 소나무 숲이 있다. 이곳에서 정월 12일에 洞會를 열고, 제관 3인을 선출하며(제를 주관하는 제관1명, 축관1명, 제사를 차리는 당주1명), 정월 15일 밤 자정에 祭를 올린다. 이때 동네 평안, 기풍, 우마번

(표 3) 수곡동의 가신신앙의 유형 및 특징

종 류	장 소	신 체 형 태	신 앙 내 용	시 기	제 목
삼 신	안방 아랫목쪽 시렁위 구석	바가지에 쌀을 담음, 한지로 덮고 실 1타래로 동여땀	애기 잘 낳고 무병, 산모의 빠른 회복 산모 순산	봄, 가을 설, 정월대보름 추석, 애기를 낳은 후 7일, 14일, 21일	백편(백설기) 밥 1사발 미역국 1대접 정화수 1대접
성 주	대청대들보밑	한지, 실한타래	가족평안 농사풍년 집안번창	성주생일날 설, 정월대보름 추석	백편 밥, 국 1사발 3색 실과
칠 성	장독대한편, 집뒷걸 자연석 1개단	없음	마음속으로 축원 한뒤 소지를 올림	우환이 생겼을 때	정화수 1그릇
용단지	뒷뜰부엌문 밖, 처마밑 바닥, 안방삼신바가지 바로 밑, 곳간, 고방, 마루, 다락	용기단지에 쌀을 가득 담고 한지로 덮고 실타래로 동여땀 납작한 돌을 올려 놓음 오지단지	제수종고 농사 잘 되길 빎	봄, 가을 설, 정월대보름	밥 1그릇 정화수 1그릇
조 왕	부엌, 부뚜막 큰 솥뒤	없음 (건궁조왕)	환자케어 만사형통을 축원	가족이 아플때 빈다. 설, 정월대보름, 추석 집안일이 잘안될때 성주앞에 제를 올릴때마다	술밥, 떡, 3색실과, 채, 포블 솥 앞 부뚜막에 진실

15) 韓相福 외 2인,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 출판부, 1986, pp. 64-65.

식 등의 내용을 기원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家神信仰의 類型은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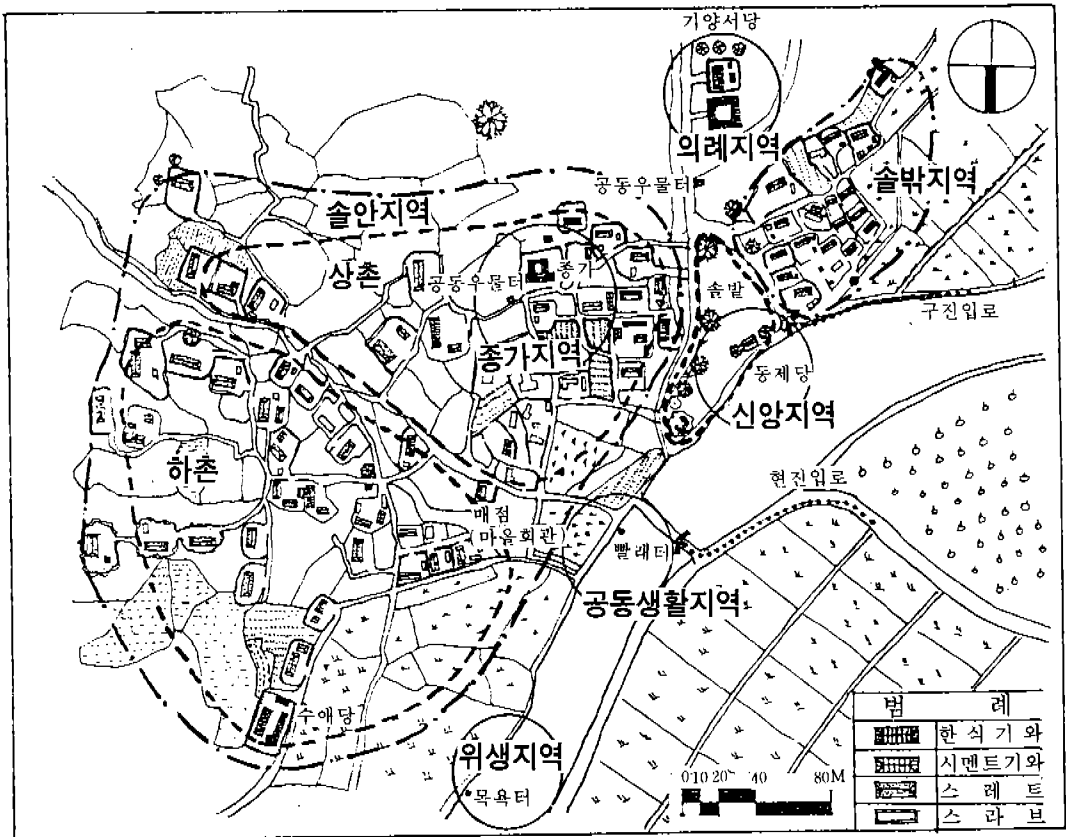
한편, 유학의 고장이라 알려진 안동 문화권에서는 명문가 일수록 冠婚喪祭를 인간사 최대의 본분으로 여겨 그 행사의 내용을 엄숙히 해 왔으며¹⁶⁾, 무실도 예외는 아니며, 이러한 유가적 내용이 생활규범으로 意識化되어 생활의 주체적 의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속적 생활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사회구조, 산업구조의 변화에 있겠으나 종래의 가족구조가 파괴됨으로 인하여 생활로서 그 내용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3. 生活環境의 構成體系

3-1. 生活環境의 構成

생활환경의 구성은 마을 전체의 지리적, 자연적 조건과 관념적 의식체계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구체화 되어 진다. 이러한 견지에 미루어 볼때 무실의 생활환경은 입지적 자연 형세가 넓어서 마을의 규모도 비교적 큰 편이며, 山勢의 흐름에 의한 지형의 고저에 따라 상·하 그리고 좌·우로 연결되는 방사형의 안길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아기산 주맥이 흘러 머무는 곳에 사당과 종택이 자리를 잡고 그 아래로 민가가 밀집되어, 전체적으로 생활환경의 위계적 질서를 이루고 있다(그림 3).



(그림 3) 무실마을의 생활환경 구성체계

16) 유교적 덕목 중에서도 조상의 숭배가 가장 중요시 되어 왔다.

마을의 구성체계를 좀 더 상세히 언급하기 위하여 이를 住居地域, 耕作地域, 儀禮地域, 信仰地域, 共同生活地域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주거지역은 마을 앞 솔 숲을 중심으로 솔 안과 솔 밖으로 나누어지며; 通時的으로 볼때 마을의 원초적인 주거지역은 宗家를 중심으로한 솔안지역이었고, 솔밖은 타성씨들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마을 앞 洞祭堂이 그 중앙에 위치하여 두 영역을 경계짓고 있다.

그리고 생활공간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上村과 下村으로 구분된다. 이는 마을의 洞有林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의 관리, '상여꾼'의 효율적인 소집을 위해 구분되며, 여기에 위계적 意識은 없다.

그리고 경작지역은 마을 앞에 대곡전을 사이에 두고 넓은 앞 뜰이 펼쳐지며, 마을 뒤에는 경사지를 개간한 밭과 임야가 펼쳐진다.

儀禮地域은 洞祭堂을 기점으로한 "솔안"의 전 주거지역이 이에 해당되며 종가와, 사당이 그 중심 공간이 된다. 그리고 공동생활터로서 洞口的 빨래터와 원파소 아래의 목욕터가 있다.

이와 같이 전통마을의 생활환경 구성은 마을 구성원들의 친족관계와 신분적 위계, 경제적 기반 등에 따라 공간적 체계가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다.

3-2. 住生活 空間의 配置類型

일반적으로 생활공간의 배치는 生活意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주택 배치기법은 건물의 坐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왔다. 이는 吉凶의 意識的 觀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生活意識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오늘날에도 그 觀念은 잠재적으로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民家의 배치는 주로 살림채와 부속채로 이루어진다. 무실마을의 생활공간 배치 유형을 살림채(안채)와 부속채의 배치형상에 따라 분류한 결과(그림 4)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一'자형 배치유형이 43.5%로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이 안채와 부속채가 별동으로 'ㄱ'자형을 이루면서 배치된 유형이 23.3%로 나타나고 있다. 배치 좌향의 실례를 살펴보면, 전체

(표 4) 주택의 배치 및 좌향분석 예

번호	건물명	좌향	사택구분
1	종택	본채	巽坐乾向 東四宅
		대문	丁方*
2	수애당	본채	乙坐辛向 //
		대문	丁方 //
3	류도번초	본채	卯坐西向 //
		대문	亥方 西四宅
4	류용대초	본채	艮坐坤向 //
		대문	辛方 //
5	류희구초	본채	巳坐亥向 東四宅
		대문	辛方 西四宅
6	류필연초	본채	午坐子向 東四宅
		대문	甲坐庚向 //
7	류오훈초	본채	午坐子向 東四宅
		대문	艮方 西四宅
8	류동세초	본채	酉坐卯向 西四宅
		대문	子坐午向 東四宅
9	류수양초	본채	卯坐酉向 東四宅
		대문	丑坐未向 西四宅

* 丁方이란 본채와 동일한 좌향을 말한다.

종류	유형	예수	%	
일자형		30	43.5	
병렬형		3	4.3	
둔각형		2	2.9	
예각형		.	.	
'ㄱ'자형	별동형		16	23.2
	자접속형		5	7.1
'ㄷ'자형	별동형		9	13.0
	자접속형		1	1.5
'ㄹ'자형	별동형		1	1.5
	완전형		1	1.5
	날개형		1	1.5
트인'ㄹ'자형		.	.	
계		69	100	

[● 범례 : 안채, 부속채]

(그림 4) 무실마을 주택 배치유형의 분포

적으로 본채의 좌향은¹⁷⁾ 다소 차이가 있으나 陽宅論에 입각하여 東四宅이 대부분이다(표 4 참고). 그리고 본채의 좌향에 따라 대문칸의 위치가 결정된다. 대문은 吉凶禍福이 출입하는 곳이라 믿어 吉方向에 대문을 두고자 하는 노력은 오늘날에도 관념적으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3-3. 生活空間의 平面類型

民家の 평면 형태 분류는 대개 지역적 분류, 평면 형상적 분류, 間의 구성 형태 등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방식을 근거로 수곡동의 생활공간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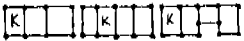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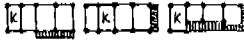







평면구성을 평면형상에 따라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ㄱ'자형(뜰집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퇴와 대청의 유무, 퇴와 대청의 복합 등에 따라 분류하여 본 결과, '一'자형의 무퇴집 평면이 전체 53.7%로 가장 높고 다음이 '一'자형 퇴발생형이 24.7%이다.

이러한 평면 유형의 분포는 앞에서 서술한 생활경제적 조건이 살림집의 규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되기도하나, 또 하나는 선조들의 유업에 따라 검소한 생활을 근본으로 삼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住生活 內容의 分析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전통적 생활양식의 내용은 대부분 儒敎의 德目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는 곧 유교적인 가르침이 우리네 생활내용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하며, 생활공간도 이러한 意識에 맞게 구성하고자 함은 당연할 것이다.

무실마을의 주생활내용도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곳의 생활내용을 일상적 起居行爲, 조상숭배행위, 민간신앙적 행위등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몇몇 평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 류	평 면 유 형	예 수	%	
'一'자형	무 퇴 형		37	53.7
	퇴 발생 형		17	24.7
	통간마루형		1	1.4
	혼합형(통마루 + 뒷마루)		4	5.8
'ㄱ'자형	통간대청형		5	7.3
	혼합형(통마루 + 뒷마루)		2	2.9
'ㄷ'자형	트인 'ㄷ'자형		1	1.4
'ㄱ'자형	뜰 집 형		1	1.4
	날 개 형		1	1.4
계			69	100

(그림 5) 무실마을의 주택평면유형의 분포

1) 水谷宗宅

수곡종택은 약 170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며¹⁸⁾, 뒷편으로는 鵝岐山(591m)을 등지고 앞으로는 東北向에서 西南쪽으로 흘러가는 半邊川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西北向 住宅로서, 몸채, 대문칸채,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종택은 건축적 특징보다는 이 곳 무실마을에 400여년간 世居해온 수곡류씨들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현재 종택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柳承佑氏는 시조 淵으로 부터 25世孫이며, 岐峰(復起) 선대로부터는 16代가 된다. 현재 이 주택에는 柳承佑氏 부모 두 사람만이 생활하고 있다. 한때 家率들이 많았을때는 온 집안에 생기가 감돌았으나 지금은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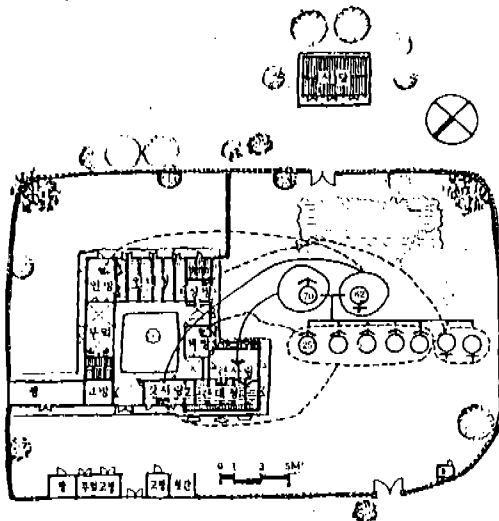
17) 주택의 좌향은 상위개념인 마을의 좌향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18) 본 종택은 경상북도 민속자료 47호로 지정되어 있음.

환으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이용하고 어머니가 가까이에서 간호하기 위해 갖 사랑방에서起居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집에서 자랄 때에는 남·여 유별의식에 따라 남자들은 갖사랑과 큰사랑에起居하였으며, 딸자녀들은 안방 혹은 상방을 이용하였다 한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집안 사람들이 대문칸채에 기거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집을 마련하여 나가곤 하였다고 한다.

민속적인 생활내용은 안동권씨에 의하면, 시어머니대에서는 성주와 삼신, 조왕, 용단지 신앙등을生活化하여 왔으나 현재 자신은 이러한 家神信仰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한다¹⁹⁾. 그나마 신단지로 宗宅을 移建하면서 성주와 삼신등의 神體마저 모두 없애 버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상숭배는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사당에는 岐峰先代 위폐와 先祖4代 위폐가 봉안되어 있으며, 명절에는 사당에서 祭를 올리고, 忌祭祀는 안대청에 위폐를 옮겨 모신뒤 祭를 올린다고 한다.

이러한 생활내용에 미루어 일부 전통생활의 내용이 점차 사라져감을 실감할 수 있으며, 물리적 측면으로서의 유형적 전통보존보다는 생활 속에 담긴 전통의 정신을 보전할 방법 모색이 더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그림 6〉 무실 종택의 공간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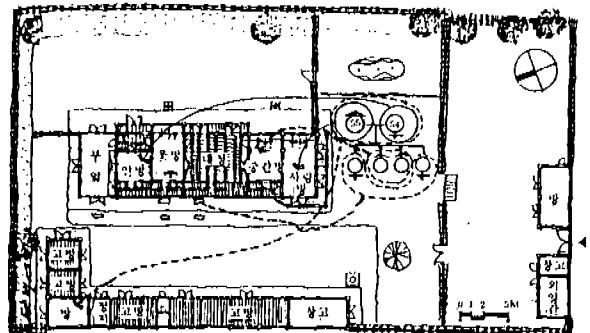
19) 水涯堂의 류필우씨에 의하면, 종부는 당시 신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2) 水涯堂(柳弼宇씨 덕)

본 건물은 1939년에 지어진 것으로, 그 배치유형은 이 지방 고유의 상류주택인 '口'자형을 따르지 않은 채집의 형태이다. 이 주택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一'자형 본채와 정면 10칸, 측면 2칸의 'ㄱ'자형 고평채, 그리고 대문칸채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이 집에서起居하고 있는 柳弼宇씨를 통해 생활내용을 살펴보면, 모친은 일찍 돌아가시고 조모님이 안방을 거쳐해 왔으며, 아주머니(하계택; 54세)가 시집을 당시(33년전)에는 시숙모가 안방에서 거쳐하고 시숙부가 사랑방을 거쳐해 왔었다. 그리하여 류필우씨가 결혼을 한 후 아랫채 방에서 1년정도를 기거한 후 시숙부가 집을 마련하여 나가면서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문칸채에는 살림이 어려운 집안의 여러 친족들이 한때 거처를 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안방과 사랑방만을 이용하고 있다.

민간신앙 생활내용을 살펴보면, 성주는 대청에 피서 왔으나 현재는 집을 移建할 당시 사랑때 천정을 해버려서 확인 되지는 않고 있다. 삼신바가지는 안방에 모셔왔으며, 지금은 시렁이 없어 안방 벽장속에 두고 있다. 용단지는 사랑방 뒷담 곁에 있었으나 뒷담이 무너져 깨어진 후 移建하면서 지금은 없다고 한다. 조왕은 神體가 없고 성주에게 빌때 부엌에서 솔뚜껑을 얻어 놓고 비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안방 윗쪽에 싱크대를 두고 있으며 부엌은 창고로 개조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앞으로 생활의 변화에 따라 주거공간



〈그림 7〉 수애당의 공간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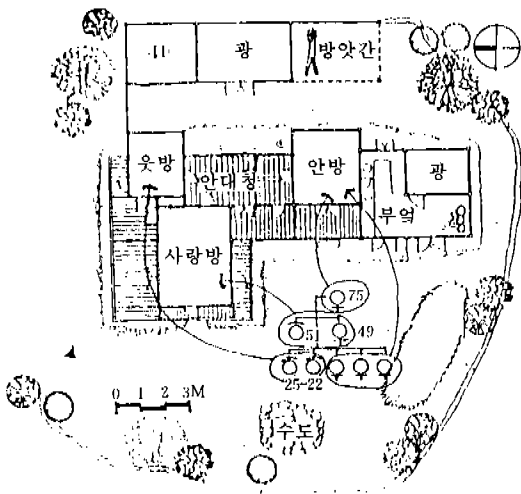
이 변형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며, 점차 그 원형을 파악하기란 힘들어 질 것이다.

3) 류도번씨 대

이 주택은 1930년대에 신축된 것이며 사용해온 년수는 약 55년 정도로 추산된다. 본채는 정면6칸, 우측면2칸, 좌측면3칸반의 'ㄱ'자겹집형으로서 초가를 개량한 시멘트기와 합각지붕이다. 부속채는 헛간(방앗간)과 창고, 측간의 용도로 사용되며, 정면3칸, 측면1칸으로서 역시 초가를 스테트로 개량한 우진각 지붕이다.

이 주택의起居樣式을 살펴보면, 일흔다섯의 노모가 손녀들과 안방에 거처 하였으며, 가장내외는 사랑방에 거처하고 남자애들은 주로 뒷방을 이용해왔다. 대개가 그러하듯이 대청은 여름에 가족의 모임장소, 意識的인 祭禮場所로 이용되며, 가을, 겨울철에는 농산물의 수납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가신신앙생활은 시어머니가 극진히 행해왔으며, 안방에 삼신바가지, 대청에 성주, 부엌에 조왕, 본채 뒷편에 텃주를 모셔두고 생활화 하였다. 이 대의 경우는 칠순이 넘은 시어머니와의 3대가 생활하는 가정으로서 전통적 생활내용이 전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은 서울로 移住하였으며, 과연 그들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 가고 있는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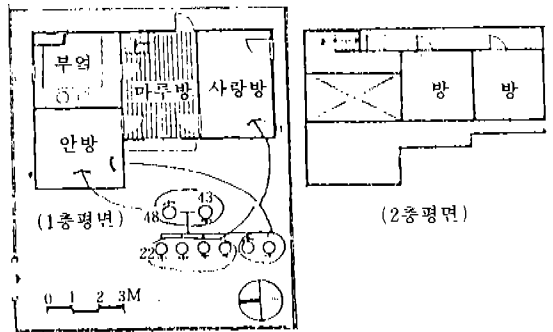
(그림 8) 류도번씨대의 공간이용 실태

4) 류수양씨 대

이 대은 78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벽돌조적식 2층 건물이다. 당시 이 사업으로 4채의 개량주택(21평, 2층)과 한옥(18평 'ㄱ'자형) 8채가 지어졌다. 이 집은 류수양씨가 결혼 후 分家하면서 지었다고 한다(그 전에는 종가에서 함께 거처를 하였음). 당시 18평기준에 용자 180만원 자부담 120만원을 들여 신축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미루어 매우 큰 부담이었다고 한다.

이 주택에서의 생활상태를 살펴보면, 안방은 부부가 사용하고 자녀들은 사랑방에 모두 지냈다. 마루는 가족의 일상생활적 장소보다는 수납창고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 2층방은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이나 가을에만 자녀들의 공부방으로 활용되며, 이때 큰 자녀들이 주로 올라간다. 그의 주로 곡식을 말리거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조상에 대한 祭禮는 宗家에서 行해짐으로 본 주택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없을 뿐더러 가신신앙의 神體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주택의 경우는 본가로부터 분가해 나온 핵가족형의 가족구조를 이룬 가정의 생활방식의 한 예라 여겨진다.



(그림 9) 류수양씨대의 공간이용 실태(개량주택)

5. 結 論

연구의 대상지역인 무실마을은 유교적 생활관이 주생활 내용에 짙게 깔려 있는 전형적인 전통마을이다. 특히 자연지리적, 인문 사회적, 생활경제

적, 민속문화적 제반조건에 의하여 특징적인 생활 환경을 형성하여 이를 發展시켜 왔으나, 임하댐 공사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수몰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이 마을 생활환경의 특징을 분석 정리해 두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의 형성은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생활경제적 여건이 제한되며, 특히 안동문화권에 바탕을 두고 있는 儒敎的 思考觀과 민간신앙적 生活觀이 생활환경 구성에 중요한 變因으로 작용되고 있다.

2) 생활환경의 구성체계는 宗家를 중심으로 上村과 下村 그리고 솔밭을 경계로 솔안과 솔밭지역으로 공간적 위계질서가 수립되고, 이는 다시 생활권역에 따라 宗家地域, 常民地域, 儀禮地域, 民間信仰地域, 共同生活地域으로 구분되어 진다.

3) 주생활의 특성은 이 마을이 集性村을 이론관계로 증가를 중심으로 儒家的 생활규범이 生活化되어 왔으며, 당시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성이 生活像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민간신앙적 내용이 생활화되어 왔으나 그 내용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은 물리적 내용의 보존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함께 보존되어야 하며, 이는 곧 생활문화로서 전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참 고 문 헌

- 姜榮煥, “三陟以南 東海岸 地域 傳統民家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 金光彦, 「韓國의 住居民俗志」, 민음사, 1989.
- 김봉렬, “지역공동체로서의 전통마을과 도시”, 건축과 환경, 1986. 5.
- 공간지, “한국전통주택의 공간구성”, 「공간」, 1984. 11.
- 건설부, 「臨河多目的댐 建物調査」, 1984.
- 문화공보부,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住生活편)」, 제16권, 1987.
- 경상북도, 안동대학박물관, 「臨河댐 水沒地域 文化財 地表調査報告書」, 1986.
- 水柳會誌, 「岐陽」, 창간호, 1989.
- 안동군, 「내고장 전통가꾸기」, 1984.
- 윤홍택, “자연관이 건축 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지”, 제23권 86호, 1976.
- 이종필 외 3인, 「영남지방 고유취락의 공간구조」, 영남대 출판부, 1983.
- 이재현·도용호, “전통주거의 유기적 상호연결 인자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산업과학연구 제6권, 1988.
- 이중우, “體·用 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8.
- 이중우·이해성, “주생활반응에 의한 주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권 4호, 1988. 8.
-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89.
- 한상복 외 2인, 「文化人類學 概論」, 서울대 출판부, 1986.
- 朝鮮總督府, 「朝鮮의 聚落」, 民俗苑, 1984.